

■ ‘영어 교육 자원봉사’ 이주여성 벨지나 발트로메씨

“필리핀 영어 선생님 소문났네”

“A(에이) 아아~ apple(애플), B(비) 브브~ banana(바나나), C(씨) 크크~ cat(캣)”

필리핀에서 한국어로 시집은 지 10년 째인 벨지나 발트로메씨(여·38·광주시 남구 월산동)씨는 동네에서 ‘맘씨 좋고 실력 좋은 영어선생님’으로 통한다. 지난 4월부터 매주 화·목요일 광

화를 나누는 것도 버거웠고, 명절에 친척들과 만날 때면 그저 “네~네~”라는 대답 밖에 하지 못했다.

발트로메씨는 아들 휴인(10)이와 수인(9)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짬이 생기자 호남대 사회복지대 학원 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석사과정을 밟



‘필리핀에서 온 영어 선생님’ 발트로메씨가 광주시 남구 월산동 ‘사직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위탁기자 jrwi@kwangju.co.kr

사직이동센터서 9개월째 무료 지도 노래 등 이용 특특튀는 교수법 인기

주시 남구 월산동 ‘사직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비서학을 전공했던 그녀는 졸업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다 알선업체의 소개로 남편 황출연(46)씨를 만났다. ‘한국에 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야’라는 생각이 망설임 없이 비행기를 탔다. 하지만 한국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가장 먼저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다. 시어머니와 오순도순 대

단 ‘사직지역아동센터’ 김영자(46) 대표를 만났다. 김 대표는 마침 센터에서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이주여성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강사로 없는 자원봉사 수업이지만, 발트로메씨는 4월부터 교사직을 맡았다. 매주 화·목요일 오후 4시~5시와 오후 5시~6시까지, 초등학교 저·고학년 아이들을 나누어 가르친다.

“요즘 아이들은 학원을 열 근데도

넘게 다닌다고 하는데, 이곳에 오는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생활에 즐거움을 느낀 만큼,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즐거움을 전해주고 싶어요.”

열정을 다해 영어를 가르치는 발트로메씨를 바라보는 김영자 대표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김 대표는

“필리핀 선생님이 노래·도구 등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쉽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 소문을 듣고 문의전화까지 자주 걸려온다”며 “어학 도구조차 없어, 작은 카세트로 일일이 노래·어학 자료를 재생해야 하는데 아무런 불평 없이 수업을 진행해주시어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나원침 (7003) 김동우



평소순도저의 중심특권을 누리려는 3.636 회대단지!

평면면적 80.9평, 가격 1억 1천 5백만 원

수원신도시 파오래

문의전화 062-367-9000

신문기사와 광고에 대한 불만

특정내용처리부담이 부담돼 드립니다

누구나 드실만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2-722-1282 www.ikpac.or.kr

한국신문독자위원회

휘날리는 '눈꽃'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다.

광주	1~6℃
주요	2~7℃
영구	4~8℃
영구	2~7℃
영구	-2~6℃
영구	-2~7℃
영구	-2~7℃
영구	-2~8℃
영구	-3~6℃
영구	0~6℃
영구	1~8℃
영구	1~7℃
영구	-3~7℃
영구	1~7℃

12월 16일 (음 10월 26일)

▲해돋이 07:34 ▲해질녘 17:22

▲달출몰 03:13 ▲달질 14:06

목포 밀물 <11:11> 썰물 <04:02> 여수 밀물 <06:27> 썰물 <12:29>

◇주간 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3/2	-4/6	-3/8	0/9	1/7	1/8

‘雪來는’ 광주·전남 주말 1~5cm 눈 내릴 듯

12월의 셋째 주 주말인 16일 새벽부터, 광주·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새하얀 눈꽃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찬 대륙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밤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린다”면서 “예상 적설량은 1~3cm, 강수량은 5mm 안팎”이라고 밝혔다.

밤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6일 밤을 기해 태백산도·호남 지방에 각종 예비특보(평균 풍속 초속 14m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0m 이상), 서해남부 모든 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에 풍랑예비특보(풍속 초속 14m 이상 3시간 이상 지속 또는 파고 5m 초과)를 내렸다.

휴일인 17일엔 새벽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 이날 지역별 아침 기온은 광주 영하 3도, 곡성·순천 영하 6도, 구례·담양·장성·장흥 영하 5도, 해남 영하 4도 등 광주·전남 대부분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부내륙지역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다.

눈은 17일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해, 곳에 따라서는 5cm 이상 올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눈이 내린 뒤에도 기온은 계속 영하권 분포를 보이다가 21일쯤 다시 영상권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시청 앞 농축산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 연맹 소속 농민들이 15일 새벽 광주시청 앞에 쌓아놓은 배·배추·파프리카·닭·염소 등 농축산물. 농민회 측은 지난달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에서 발생한 광주시청사 피해와 관련, 광주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요구하며 향후 현물배상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탁기자 jrwi@kwangju.co.kr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 연맹 소속 농민들이 15일 새벽 광주시청 앞에 쌓아놓은 배·배추·파프리카·닭·염소 등 농축산물. 농민회 측은 지난달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에서 발생한 광주시청사 피해와 관련, 광주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요구하며 향후 현물배상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탁기자 jrwi@kwangju.co.kr

농민회 “손배소 철회때까지 현물 투쟁” 광주시청 앞 야적시위

경찰, 4명 검거 조사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 연맹 소속 농민 100여 명은 15일 0시10분께부터 광주시청 앞에 농축산물을 쌓아놓고 무기한 현물배상 투쟁에 들어갔다.

농민회 측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시위 당시 시청사 파손에 대한 광주시의 손해배상 소송이 철회될 때까지 현물 납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청사 파손에 대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채 결과만 놓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사법처리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미 FTA 협상 중단 ▲사법처리 방침 철회 ▲한미 FTA에 대한 박 시장의 명확한 입장 발표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광주시장과 민주당 광주시당에 한미 FTA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서한문을 이날 오후 전달했다.

농민회가 광주시청사 앞에 야적한 농축산물은 ▲배 80여 가마 ▲배추 2t ▲파

프리카 200kg ▲닭 20마리 ▲염소 3마리 등 1천여만원 상당으로, 각 지역 농민회별로 분담한 것이다.

경찰은 15일 오후 농민회 측이 야적시위에 나선다는 정보를 사전입수, 15개 중대 병력 1천600여 명을 광주·전남지역 39개 검문소에 배치했으나, 농민들은 이날 새벽 기습적으로 농축산물을 시청사 앞에 야적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배 10가마와 무 1t을 차량 3대에 싣고 광주에 올라오던 합령 농민회 20여 명과 강진·순천지역 농민들은 경찰의 제지를 받고 되돌아 갔다.

경찰은 이날 야적시위를 벌인 전농전 남연맹 강모(37) 정책위원장 등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22일 광주시청사 앞에서 열린 FTA 반대시위 과정에서 청사 유리창·보도블록 등 피해를 입자 지난 1일 농민 등 42명을 대상으로 2억1천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출했다.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광주·전남 소비자단체 조사

광주·전남지역 사립과 국공립 간 유치원 수업료 격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주부교실·여수 YWCA 등 광주·전남지역 4개 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이날 초·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7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립과 국공립과의 수업료 차이가 최고 16배나 됐다.

광주지역 사립 유치원 월 수업료는 최고 37만5천원으로 국공립 최고(2만3천800원)에 비해 16배 가량 됐다. 평균도 사립 19만7천292원으로 국·공립평균(2만803원)에 비해 10배에 가까웠다.

사립 유치원 평균 수업료는 순천이 20만4천643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수 20만3천211원 ▲목포 20만원 ▲광주가 19만7천292원 등이었다.

국립유치원은 순천(2만3천604원)이 가장 비쌌고 타지역은 2만원대였다. 입학금의 경우 광주의 사립유치원은 최고 15만원이었으나, 국공립 유치원은

3천400원으로 44배의 차이가 났으며 여수도 최고 32배의 격차를 보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15일 “사립유치원은 특기수업료를 별도로 받을 뿐 아니라 교재비, 재료비, 급식비 등도 대부분 별도로 받기 때문에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낳고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행과 카드사 용은 대부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수능 성적 공개 학원 고발

교육부 임상현 기획홍보관관련은 “학원이 자료를 입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가 끝났지만 경고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자체조사 결과 철출확인된 경남의 K고등학교로부터 수능 성적자료를 미리 입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영광원전 가동 중단

영광원전 원자력 2호기(95만kW급)가 15일 정상 운전 중 가동이 중단됐다.

원자력본부는 15일 오전 8시27분 증기발생기에 공급하는 급수 내의 용존산소를 제거하는 설비인 수위 제어카드 고장으로 원전 가동이 중지됐다”며 “현재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장으로 스팀 소리가 외부에 크게 들려 일부 주민들이 불안해 떨었으며, 전남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원전의 이상 여부 등을 영광원전 측에 확인하는 등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원자력본부는 “고장등급 0등급으로 방사능 누출 등 피해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원전은 지난 9월에도 원자력 3호기(100만kW급) 수위 제어카드가 고장나 일시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전화 사기 극성 배후 조직 추적

검찰과 국제청,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돈을 이체 받아 떼어먹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사건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전화 사기단은 처음 국제청과 건보공단, 은행 등을 썩먹었으나 최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까지 사칭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피해자를 겁주 은행으로 유인한 뒤 현금지급기를 통해 돈을 이체받는 수법을 사용한다.

또 ARS를 통해 상담원을 연결해주는 것처럼 꾸민 뒤 온라인 사기사건 일당의 계좌에서 피해자 계좌번호가 나왔으며 주민번호 등을 캐내고, 폰방킹에 가입하게 한 뒤 돈을 송금받으려는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엔 13일 하루만 이런 사기행각을 신고하는 전화가 무려 300통이 넘게 왔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은 이런 종류의 사기 행각을 기획·지휘하는 ‘콘트롤 타워’가 중국 등 외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ARS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주민번호·거래은행·계좌번호·통장잔고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않으므로 일단 전화로 이런 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술 마시기 게임 뒤 여자 후배 성폭행

○광양 경찰은 15일 술 마시기 게임을 한 뒤 술에 취해 잠든 학교 여자 후배를 차례로 성폭행한 H(17)군 등 고교생 3명을 강간 처상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새벽 0시30분께 광양시에 있는 H군의 아파트에서 A(16)양 등 학교 후배 2명을 불러 ‘술 마시기’ 게임을 한 뒤 잠이 들자 A양을 차례로 성폭행했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같은 반 친구인 H군 등은 여자 후배 등을 집으로 부르기로 성폭행하기로 미리 계획을 짰 뒤, 게임을 하며 일부러 술을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기러기 아빠’의 한탄

딸 수능성적 낮게 나와 격분 아내 폭행해 ‘가정폭력’ 입건

지난 14일 밤 9시40분께, 삼수생인 딸의 대입 수능 성적표를 받아든 B(46·광주시 서구)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동안 부인(45)이 자신을 속여온 것을 몇 년 만에 알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의 모 간신히사 엔지니어인 B씨는 딸(22)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기를 고대했다. ‘기러기 아빠’ 생활이 너무 외로워 딸이 오면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며 있었다. 수능성적이 발표되자 진학 가능 대학을 의논하려고 주중인데도 서울로 광주에 내려왔다.

하지만 성적표를 건네받은 B씨는 너무나 실망스런 결과에 격분했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바쁜 일과 때문에 교육을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긴 게 후회됐다. B씨는 그동안 “성적은 관찮은데 서울의 좋은 대학을 가려면 재수·삼수를 해야한다”는 아내와 딸의 말을 철სangka이 믿어왔다.

“도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B씨는 아내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구타하기 시작했다. 참다못한 부인은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B씨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할만한) 실력이 안 된다고 진작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내가 직접 나서서 챙겼을 텐데 아내와 딸이 나를 속였다”며 자녀교육에 신경 쓰지 못하는 ‘기러기 아빠’의 신세를 한탄했다.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